

조사보고서

2021-2

2021년 2/4분기

기업경기전망조사 분석결과

2021. 3

 **여수상공회의소**
<http://yeosucci.korcham.net>

I. 조사의 개요

1. 조사목적

- ◆ 여수지역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조사·분석하여 역내 기업의 경영 활동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, 정부 및 시·도지자체의 경기 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있음.

2. 조사기간, 조사방법

- ◆ 2021년 1/4분기(1, 2, 3월) : 실적기간
- ◆ 2021년 2/4분기(4, 5, 6월) : 전망기간
- ◆ 조사기간 : 2021. 3. 15. ~ 2020. 3. 29. (휴일제외 11일)
- ◆ 조사방법 : 설문지 조사

3. 조사대상

- ◆ 여수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종업원 15인 이상의 **제조업체** 186개사
- ◆ 응답개수 : 71개 (설문지 회수율 : **38.2%**)

4. 조사내용

- ◆ 전반적인 체감경기(경기실적 및 전망)
- ◆ 경기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과 대책 상황 등

5. 집계·분석

- ◆ 회수된 조사표를 각 항목별로 집계·처리

6. 기업경기 실사지수(BSI)의 작성방법

- ◆ 경기조사 및 항목별 평가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간의 실적과 예측을 각각 전 분기 및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호전(상승, 증가), 악화(하락, 감소)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하였음.

기업 경기 실사지수(BSI)는 다음 산식에 의해서 작성하였음.

$$\text{기업경기실사지수(BSI)} = \frac{\text{증가(+)\표시업체 수} - \text{감소(-)\표시업체 수}}{\text{총 유효 응답 업체 수}} \times 100 + 100$$

※ BSI = Business Survey Index (0 ≤ BSI ≤ 200)

- ◆ 따라서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(상승, 증가)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(하락, 감소)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를 나타냄.

II. 2021년 2/4분기 기업경기 전망

1. 종합전망

가. 개황

- ◆ 여수지역에 소재한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(설문지 회수 : 71개, 회수율 : 38.2%)으로 2021년도 2/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,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는 '91.5' 로 조사되었음.
- ◆ 이중, 석유화학 연관업종(n=40개)만을 대상으로 한 경기전망지수(BSI)는 82.5임

나. 항목별 경기전망 지수

【종합 (N = 71)】

구 분 항 목	전체	
	2021년 1/4분기 실적 (전 분기 대비)	2021년 2/4분기 전망 (전 분기 대비)
체감 경기	81.7	91.5
매출액	78.9	94.4
영업이익	70.4	85.9
설비투자	83.1	100.0
자금조달여건	80.3	90.1

【석유화학 연관업종(N=40)】

구 분	항 목	전체	
		2021년 1/4분기 실적 (전 분기 대비)	2021년 2/4분기 전망 (전 분기 대비)
	체감 경기	97.5	82.5
	매 출 액	87.5	85.0
	영업이익	80.0	80.0
	설비투자	82.5	95.0
	자금조달여건	90.0	87.5

【일반업종(N=31)】

구 분	항 목	전체	
		2021년 1/4분기 실적 (전 분기 대비)	2021년 2/4분기 전망 (전 분기 대비)
	체감 경기	61.3	103.2
	매 출 액	67.7	106.5
	영업이익	58.1	93.5
	설비투자	83.9	106.5
	자금조달여건	67.7	93.5

2. 설문 결과 분석

- ◆ 2021년 2/4분기의 여수지역 경기전망지수(BSI, n=71)는 ‘91.5’로 조사되었다. 응답 개수 : 71개 (설문지 회수율 : 38.2%)
- ◆ 이는 기업경기 체감지수 기준 값(前분기 대비 다음분기의 기업경기 체감이 동일함을 의미하는 기준 값)인 100보다는 작은 값으로 “부정적”인 결과다.
- ◆ 그러나 2021년 2/4분기 조사결과는 전 분기 체감경기 지수 65.2와 비교하였을 때 크게 상승한 수치다. 좀 더 상세하게 최근 2년간 (8분기)의 체감경기 추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.
- ◆ 89.4(2019년 3/4분기)⇒ 70.6(2019년 4/4분기)⇒ 97.1(2020년 1/4분기)⇒ 73.2(2020년 2/4분기)⇒ 58.0(2020년 3/4분기)⇒

44.1(2020년 4/4분기)⇒ 65.2(2021년 1/4분기)⇒ 91.5(2021년 2/4분기)

- ◆ 이는 2020년 2/4분기를 기점으로 계속되는 하락추이를 나타내고 있던 체감도가 이번 조사에서는 상향 전환되었고, 코로나 정국 이후 90이 넘는 수치로 첫 전환된 조사 결과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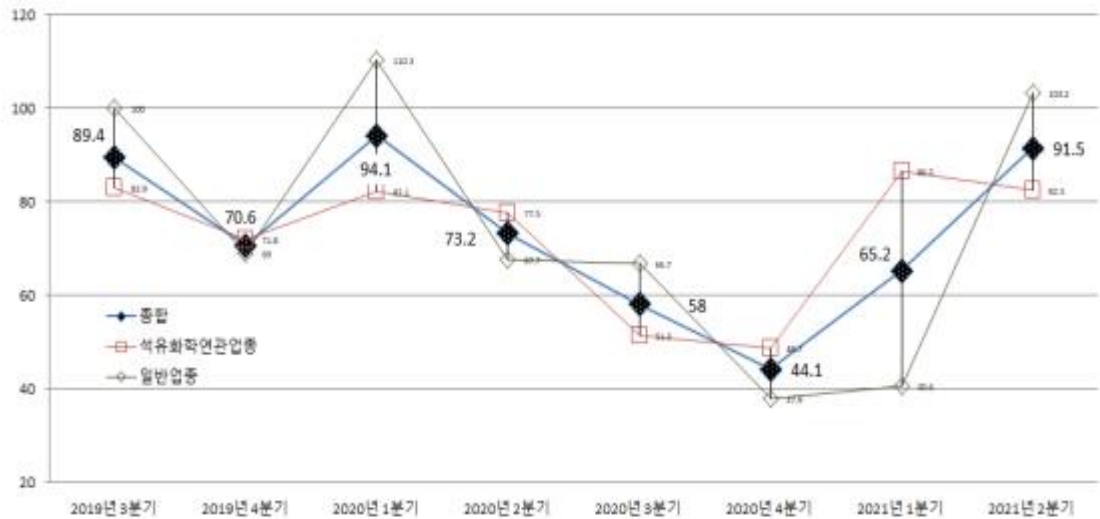


그림 2 BSI 추이 (2019년 3/4분기 ~ 2021년 2/4분기)

- ◆ 이번 조사 결과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對시민 접촉이 본격화되면서, 코로나19 확산이 진정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수요증가, 경기 회복, 대면시장 활성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상승국면으로 전환했다는 분석이다.
- ◆ 반면, 2021년 2/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의 업종별 수치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.
 - 석유화학 연관업종 : 86.5(1/4분기) ⇨ 82.5(2/4분기)
 - 일반 업종 : 40.6(1/4분기) ⇨ 103.2(2/4분기)
- ◆ 이번 조사 결과의 특징 중 하나는 석유화학 연관업종의 일반업종에 비해 등락폭이 크지 않게 조사되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.

- ◆ 공급측면에서 보면 국제변동 요인(미국의 이례적 한파로 인한 원유 공급력 하락, 중동 산유량 감산 행보 등) 등의 영향으로 수요대비 과잉된 원유공급을 안정화 시키면서 유가 상승(유가 회복) 등 긍정적 영향으로 이어져, 석유화학 업계의 영업이익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,
- ◆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경기회복에 대한 장기화 우려 속에서, 전기차 이슈 등 원유 수요를 가로막는 부정적 전망이 석유화학 업계에서 여전히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.
- ◆ 따라서, 석유화학 연관업종은 공급은 긍정적 신호, 수요는 여전히 부정적 신호가 교차되면서, 이번 조사에서는 증감폭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다. (86.5 ⇨ 82.5, 4 하락)
- ◆ 반면 일반 업종의 경기전망지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로 대면시장 활성화, 수요 증가,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증가로 체감지수 상승을 주도하여 전(2021년 1/4분기)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.(40.6 ⇨ 103.2, 62.6 상승)
- ◆ 이번 체감경기조사는 2020년 1분기를 기준하여 지속적인 하락국면을 보여 왔던 체감경기가 일반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추세로 돌아섰고, 또한 일반 업종에서 체감지수 기준 값인 100을 넘는 긍정적 수치를 나타낸 점이 주목할 만 하다.

【코로나19가 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세부 영향 조사】

- ◆ 「올해 귀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외리스크는?」 이라는 질문에 “유가상승 (36.8%)” > “환율변동성 (21.1%)” > “기타(16.8%)” > “신흥국 경기침체(14.7%)” > “미중무역갈등을 포함한 보호 무역주의(9.5%)” > “북한이슈(1.1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올해 귀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 리

스크는?’이라는 질문에는 “코로나 재유행(45.7%)” > “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(19.0%)” = “기업부담법안 입법(19.0%)” > “가계부채 증가(9.5%)” > “기타(5.1%)” > “반기업 정서(1.7%)” 로 조사되었다.

- ◆ 「코로나19가 국내 4차 산업혁명, 디지털 전환속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?」라는 질문에 “더 빨라졌음(85.9%)” > “변화없음(9.9%)” > “더 느려짐(4.2%)” 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코로나19가 선진국과 우리기업 간 기술격차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?」라는 질문에 “변화없음(52.1%)” > “더 줄었음(25.4%)” > “더 커졌음(22.5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코로나19가 중국 등 신흥국의 기술 추격속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?」라는 질문에 “변화없음(53.5%)” > “더 빨라졌음(38.0%)” > “더 느려짐(8.5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코로나19가 국내 소득 양극화 정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?」라는 질문에 “더 심화됐음(83.1%)” > “변화없음(15.5%)” > “더 완화됐음(1.4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작년 한해 실적이 재작년에 비해 어떻게 변했습니까?」라는 질문에는 “다소 악화(47.9%)” > “올해와 비슷(32.4%)” > “매우 악화(19.7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코로나 재유행이 없음을 가정할 때,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실적이 회복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?」라는 질문에는 “내년 이후에나 가능(76.5%)” > “올해 안(20.6%)>” “상반기 중(2.9%)” 으로 조사되었다.